

한국 교육학의 초석, 정범모

허 형 |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졌으며...

정범모는 한국의 교육학이 학문으로, 특히 과학으로서의 교육학으로 발전하는데 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학문이 학문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을 무시할 수 없다. 정범모가 1950년대 초, 시카고 대학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심혈을 기울인 것은 한국의 교육학을 과학의 토대 위에서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학문으로서의 교육학 연구가 거의 불모지와도 같았던 그 당시에, 정범모는 현상 세계의 기술, 설명, 예언, 통제라는 과학의 기능을 교육학 연구에 접목하였고, 교육학의 연구 활동을 사실의 수집, 관찰, 추론, 가설 형성과 실험 등을 강조함으로써 논리적 실증주의에 입각한 교육학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범모가 과학적·비판적 연구 방법을 남달리 강조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호기심의 존재이며,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적인 대답이 아니고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학문에서의 과학적인 접근은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함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도 말고 거짓말에 속지도 말자는 그의 학문적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탐구에는 실천과 개혁의 정열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이나 변화는 사

실적 법칙과 원리와 같은 사실적, 과학적 이치가 합당할 때에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의분이나 절규, 결의, 또는 캐치플레이즈와도 같은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 때문이다.

정범모의 이러한 학문적 노력으로 교육학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어느 사회 과학의 학문보다도 일찍이 과학으로서의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젊은 교육 학자들이 교육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문은 무조건적인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열정으로 정범모는 젊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심리 통계적 방법(1955)'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학생들에게 통계학과 과학적 연구 방법론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에 '교육심리연구실'을 만들어 학생들과 사제동행으로 한국 최초의 집단용 지능검사인 '간편 지능 검사'를 비롯하여 '인성 검사', '학습 흥미 검사', '적성 검사', '표준화 학력 검사' 등 각종 표준화 심리 검사를 연구·개발하여 인간의 제 특성을 측정하고 연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시카고 대학의 훌륭한 석조 건물 속의 '교육심리연구실'과는 달리 낡아 빠진 과거의 사범대학 본관 숙직실의 한 귀퉁이를 빌려 '교육심리연구실'이라는 작은 연구실을 차렸지만

각종 표준화 심리검사를 연구·개발하기는 시카고 대학이나 다들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 곳을 통하여 심리 측정을 전공하는 많은 중견 학자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오늘날 전문 연구 기관들과 많은 대학에서 수많은 심리검사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범모가 써 뿌린 수고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의 바로 이러한 일련의 초기의 학구적 노력들이 한국 교육의 과학화를 위한 첫 단계였을 것이다.

교육 개혁을 열망하던 항변의 세월

1945년 조국의 광복으로 새 교육의 열망과 함께 새로운 교육 제도가 마련되어 십여 년 간 우리의 교육을 바로잡기 위하여 힘을 써 왔으나, 당시로서는 일제의 식민 통치적 교육의 잔재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을 뿐, 6·25 동년 후의 폐허 속에서 근대화 된 교육적 전통이 변변히 이어져 온 것이 없었다. 오천석(1956)의 지적대로 당시의 교육 현실은 고색이 창연했고, 옛날 밟던 굳어진 길을 가되 새 것에 대한 불감증이 심했으며, 틀에 박힌 수레바퀴를 개미처럼 돌리 태연했으며, 과거에 연연해하고 도처에 득실거리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보는 눈까지 흐려져 있었다. 나라는 민주 사회를 염원하는데 학교는 전제주의의 온상이 되어 있었고, 백성은 자유를 회구하는데 교육은 억압을 기르고 있었다.

이러한 1950년대 중반, 미국에서 새로운 교육 사상과 교육 이론으로 무장하고 귀국한 정범모는 젊음의 열정과 번득이는 지혜로 한국 교육에 대한 반항과 울분이 용솨음쳤다. 활화산처럼 분출했던 글들을 엮어 책으로 낸 것이 '항변의 장(1956)'이다. 그는 이 책의 발문에서 "그저 교육 개혁, 사회 개혁의 욕망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답답해질 때, 가슴이 터지는 대로, 머리가 쏘아 대는 대로, 붓이 가는 대로 그대로 쏟아내 본 것이다."라고 토로하였다. 어느 곳 하나 시

원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의 답답한 교육 환경과 교육 개혁에 대한 그의 불같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체계의 정립

정범모는 이러한 항변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상아탑 속에서 교육학의 핵심적 이론서인 '교육과정(1956)'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출판하였다. '교육과정(1956)'은 프랭클린 보빗(Franklin Bobbit)의 'The Curriculum(1918)' 이후 38년만에 나왔으며, 우리나라의 교육 학자 가운데 이 책을 배우거나 참고하지 않은 학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책 뒷부분에 수록한 102권의 참고 문헌은 지금도 교육과정과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들이며,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문의 물줄기를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당시의 이 분야를 전공하는 후학들에게 보물과도 같은 선물을 곁들인 셈이다.

정범모는 시카고 대학의 랠프 타이러(Ralph W. Tyler) 교수로부터 '교육과정' 강의를 들었으며, 교육 문제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그리고 교육학을 다 동원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배웠다고 솔직한 바 있다.

정범모의 교육과정 모형이 타이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Tylerian 교육과정 모형이 관료주의적 모형, 개량적 오리엔테이션 모형, 행동주의 신봉자들의 모형, 공학적 합리주의 모형(Kliebard, 1981)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학교 교육의 개선, 교육과정의 구성과 개혁, 교육과정의 가치 명료화 과정, 교육의 효과 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적 정신의 발휘 등 한 나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다가

오는 미래의 사회에 적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유도하거나 선도해 나가기도 한다. 정범모의 '교육과정'이 1962년의 제 2차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1973년의 제 3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지는. 그 동안의 체계적인 한국의 학교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 있어서 지침서의 역할을 하였다.

교육 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 평가란 그저 훈도 앞에 불러 나와서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의 내용을 줄줄 암송하듯이 학교 시간에 배운 지식의 내용을 암기해서 적어 놓는 식의 시험을 보거나 채점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성적 매기는 것이 전부였던 1950년대에, 정범모는 '교육 평가(1954)'라는 저서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출간하여 과학적인 교육 평가의 틀을 마련하였다. 한국 최초의 교육 평가 전문가로 교육 평가 학자였던 것이다. 정범모는 교육 평가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교육을 통하여 길러지는 학생의 능력이나 행동 특성을 어떤 기준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유형이다. 학생의 어떤 능력, 어떤 행동을 길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은 명확한 행동적인 술어로 진술되어야 하며, 그 목적의 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육 평가의 제 일차적 기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학생 평가 또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하였다. 평가해야 할 행동 영역을 인지적 행동, 정의적 행동, 심체적 행동으로 구분하고, 인지적 영역에서도 '응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과 같은 인간의 고등 정신 과정의 성취도를 강조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 평가의 방법은 학생의 어떤 행동을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형, 서답형, 논술형 등으로 방법을 다양하게 달리해야 하며, 질문서에도 간단

한 사실적 질문서, 통계적인 검증을 거친 목록화된 질문서, 척도화된 질문서, 투사적인 질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행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외의 평가 양식으로 행동 관찰, 작품 분석, 실기 분석, 기록 분석, 면접 등 교육 목표의 성취도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요즘 강조되고 있는 수행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범모는 이미 40년 전에 우리에게 제시한 셈이다. 정범모는 특히 측정 방법의 양호도로써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강조하였다.

둘째는 교육 과정 자체의 여러 요인·측면·과정을 어떤 기준에 비추어 평가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평가 유형이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그 자체의 평가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방법은 우선 이상적인 교육상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론화하고 실증된 모든 여러 요인·측면에 관한 교육 원칙들을 분석·종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방법은 학생 평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교육 측면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육 연구 방법, 교육 조사 방법이 더욱 세련되어야 하며, 실험 연구나 현장 연구의 방법을 세련되게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는 교육의 사회적 공헌도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함으로써 교육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평가 유형이다. 교육은 개인에게 공헌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한 사회의 어떤 필요에 공헌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의 신장, 국가 사회의 발전, 국가의 경제 발전 등이 교육에 의존한다고 할 때에 과연 교육의 공헌도는 얼마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유형의 교육 평가인 것이다. 이 유형의 평가 방법은 학생 평가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 다양한 사회 과학적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범모 교육학의 정립

정범모는 '교육과 교육학(1968)'을 출간함으로써 정범모 교육학을 정립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정범모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인간적·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개념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학이라는 학문, '공학적 예술로서의 교육 계획과 실천' 그리고 교육 실천가로서의 교육자 등 3자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 모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 행동'을 정의함에 있어서 행동의 개념을 행동주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국한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과학의 방법론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화'라는 개념과 '계획적'이라는 개념에서 교육이 지닌 힘의 원천을 찾으려 하였다. 정범모의 교육에 관한 정의는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의한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교육학이 하나의 학문 또는 과학으로서 교육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적 조건과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정범모의 이러한 행동 개념과 변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교육 과학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범모는 "... 교육 자체가 과학이란 말도 아니고, 교육 자체가 온통 과학적으로 규제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또한 교육에 관계되는 규범적·이념적·철학적 문제에 관한 학문적 영역의 존립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범모는 "교육 활동 그 자체는 가치 지향적이다. 즉, 어떤 목적이나 규범이나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따라서 가치의 세계는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은 인간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사람다운이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곧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서 '행동'을 빼고 나면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행동'이 곧 그 사람일 수밖에 없고,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품성이든, 인품이든, 지성이든, 태도이든, 모두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아닌가?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 도덕적이라는 것 등등,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한다는 것이다.

정범모의 행동주의적 교육의 개념 정의를 지나치게 행동주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규정해 버린다는가, 또는 계획적 행위를 지나치게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 행동을 엄격하고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된 통제 장치 속에서 조작하는 기계론적 특징으로만 해석하려 든다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교육에서 '계획적'이라는 개념은 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육 방법의 구안, 교육 효과의 판단 및 성취도 평가 등 교육의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강조할 뿐이다.

발전을 위한 교육

1960년대에 정범모는 발전론적 분위기가 고조된 당시의 사회 과학계의 움직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 과학 여러 분야의 학자들과 공저로 출간한 '발전론서설(1965)', 편저로 출간한 '교육 계획(1966)', 수상집 '발전의 서장(1966)' 등은 모두 교육을 국가 발전의 맥락, 사회 발전의 맥락, 경제 발전의 맥락에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사회적 공헌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범모는 '성취 동기의 육성', '창의성 개발', '지능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 행동

의 특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을 발전의 틀 속으로 내몰 수도 있으며, 결국 인간을 수단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정범모 자신도 발전을 위한 교육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우려하기도 하였다. 정범모가 가진 발전의 개념은 정치적으로는 참여화, 경제적으로는 과학화와 공업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개방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는 발전의 목표를 최대 다수의 국민 개개인이 '최대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조건을 건설하는 것' 이라고 하였고('인간의 욕구와 국가 발전, 1982'에서), 교육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발전의 목표와 교육의 기능을 규정하는 그의 어느 진술에서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폐쇄적 도구주의를 찾아볼 수 없다. 1960년대의 우리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빈곤의 탈피가 급박한 국가적 과제였고, 그의 발전관은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근대화', '산업화', '성장과 발전' 등과 같은 '근대성(modernity)' 에 기초하고 있다. '근대화' 는 발전 도상 국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지상 과제로 삼고 있었던 화두였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범모의 근대화 혹은 발전에의 집착은 다소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필자가 "선생님께서 성취 동기를 그토록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성취 욕구가 강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사석에서 질문 드렸을 때, "내가 너무 목소리가 강했나?" 하시며 웃으셨다.

그는 근대화의 당위성에 미련을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성과에 회의론을 갖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그의 사고의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혹은 발전의 의지에 의해서 외면 당하는 삶이 또 다른 측면의 소중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다음과 같이 '탈 발전' 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그 때 국내에서는 마침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발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발전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던 때였다. 또 국내외로 발전에 대한 여러 사회 과학적 이론도 썩 활발하던 때였다. ... 그러나 그 때부터 불과 20여 년만에 이 책에서 탈 발전을 주장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미래의 선택, 1989)."

미래의 선택과 교육력에의 기대

정범모는 한림대 총장을 지내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고도 성장의 우리 현대 사회를 냉철한 비판적 안목으로 성찰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의 선택(1989)' 을 출간하였다. 그는 발전론을 주장하면서도 인간의 실존적 자각에 관심을 가졌으며, 앨빈 토풀러의 '미래의 충격' 에 포함될 수도 있는 인간의 운명과 그 한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 거대하고 급격한 미래의 충격과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간적 존재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대로 가면 인간은 결국 '물질 문명' 에 눌리고, '기계 문명' 에 압도되고, 소외되고, '자아 상실' 그리고 각종 환경 오염으로 인간 생존의 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미래의 전망 속에서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정립' 또는 '재정립' 할 것이냐는 문제들로 종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범모는 이러한 실현 가능한 미래의 선택을 '교육력' 에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교육력' 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하였다. 그 하나는 강하게 교육해 내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의 높고 깊고 넓고 다양한 거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뿌리를 같이 하며, 다른 하나는 교육이 정치, 경제, 사회, 공해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힘을 의미한다. 결국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의 힘에 의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자적 사회 봉사의 본을 보이면서...

학자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보급하며, 지식을 적용하는 일이다. 즉, 연구와 교육과 사회 봉사가 그것이다. 정범모는 이 세 가지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하였다. 특히 그의 학자적 사회 봉사는 모든 학자들의 귀감이 되는 사회 봉사들이다.

정범모는 1950년대 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내에 '교육심리연구실'을 개설하여 사제 동행으로 표준화 심리검사를 개발함으로써 학자로서의 사회 봉사를 처음 시작하였다. 1953년에는 부산 피난 시절에 한국교육학회를 창립하는데 총무 간사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1966년에 한국교육학회 제 14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분과연구회와 지역별 지회를 설립하고 학회 기금 조성 운동으로 학회를 크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1967년에 한국교육학회 제 15대 회장에 재선되기도 하였다.

1953년 말 환도 직후에는 '중앙교육연구소'의 출산에도 참여하였고,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 교무처 산하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선발 고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입학 제도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이듬해인 1960년에는 문교부와 협조하여 한미 교육 원조 계획의 재정적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을 창설하였다. 이 연수원은 교육 이론과 현장 교육을 연계하는 국내 최고 권위 재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그 이듬해인 1961년에는 아시아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서울대학교 학생처 산하에 국내 최초의 학생지도 연구소(현재의 학생생활연구소)를 창설하고, 그 지도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이 연구소의 설치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 설치하는 효시가 되었다.

정범모는 행동 과학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넓어지고, 인간과 사회 현상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사회 과학 분야의 석·박사들을 규합하여 연구

인력 집단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의도가 1967년 '중앙교육연구소' 감당 한 구석에 '적성검사연구센터(TIP : Talent Identification Project)'의 발족으로 가시화하였다. 이 센터가 모체가 되어 1968년 9월에는 사단법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를 창립하였다. 1970년 5월에는 안국동에 위치한 한국걸스카우트 빌딩으로 이전하여 학습개발부, 사회개발부, 기관(조직)개발부, 아동개발부, 검사개발부로 연구 부서를 확대하여 본격적인 행동 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소에서 배출한 석·박사가 약 2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제 중견 학자들로서 각 대학에서 정범모가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연구하며, 또 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1973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 과정에도 정범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미국국제개발협조처(USAID)의 지원으로 1971년에 내한했던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 연구팀의 상대역을 맡아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연구 개발 기구의 설립을 건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탄생된 기관이 바로 한국교육개발원이다. 정범모가 추천하여 이 프로젝트의 연구비로 플로리다 주립 대학에서 수학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


정범모는 인스티튜션 빌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한번도 그 책임자의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참신한 아이디어로서 기관을 더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소망과 후학을 키운다는 학자적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인스티튜션 빌딩을 대학 교수로서의 진정한 사회적 봉사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범모는 일생을 통하여 행동과학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다른 연구 기관들을 통하여 교육학 및 행동 과학에 관한 연구와 인재 양성으로 한국의 학문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그가 끼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정범모는 1973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장, 1978년에 충북대학교 총장, 1991년에 한림대학교 대학원장, 1993년에 한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의 개혁과 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지방의 한 단과대학에 불과했던 충북대학교가 현재와 같은 종합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범모의 대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인스티튜션 빌딩 프로젝트의 산물인 것이다. 충북대학교 총장 시절 정범모는 대학 발전 기금을 모으거나 유능한 학자를 교수로 모시기 위하여 외국을 다니거나 대학의 구조와 관습 등을 과감하게 개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4년 동안 열화와 같은 대학 바로 만들기를 임기와 함께 끝내고는 연임할 수도 있었으련만 미련 없이 단임의 미덕을 여지없이 발휘하였다.

교육에 대한 끝없는 열정

학문과 교육에 대한 정범모의 열정은 아직도 청년처럼 뜨겁게 불타고 있다.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대학 행정의 중책을 맡으면서도 정범모는 자나깨나 교육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현재의 한국 교육의 난국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해부하고, 내일의 한국 교육을 열기 위한 주옥 같은 제언을 담은 '교육 난국의 해부(1991)'를 편저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 교육이 주로 입시 준비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비판하고 입시 교육의 병폐, 입시 방법의 국내외 동향, 대학의 학생 선발과 사정의 원리 그리고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1993)'를 공저로 출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으로 가능성으로서의 인간, 자아로서의 인간, 자유로서의 인간, 창조하는 인간, 몰입하는 인간, 용기 있는 인간으로 그 유형을 제시하고,

그러한 인간 교육을 위한 원리와 한국 교육의 제 문제를 분석한 '인간의 자아 실현(1997)'을 내놓았다. 그리고 2000년을 기념이라도 하려는 듯이 '한국의 교육 세력(2000)'을 출판하여 또 한 차례 후배들과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 사람, 한 나라의 마음새를 형성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넓은 뜻의 교육'이며, 그 마음새를 형성하는 모든 세력을 '교육 세력'으로 규정하고, 가정의 부모, 학교의 교사, 각종 매스미디어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의 교육적 책임이 막중함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경성사범학교 교생 실습 시절, 선생님을 바라보는 총총한 어린이들의 기대에 찬 눈망울을 보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청소년 시절의 꿈을 접고, 교육과 교육학의 길을 택했던 정범모는 그가 택한 길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닦아 왔고, 자신이 그 학문의 초석이자 큰 바위 얼굴이 된 것을 역사는 확인시켜 줄 것이다. 

허형

중앙대 교육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 대학 대학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공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육군부관학교 고등군사반 심리학 교관을 역임하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 학습개발부장, 부소장을 역임했다. 1982년부터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교무처장 및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 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장,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민주평화통일 대통령 지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교육평가」,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유아의 지능 발달」 등이 있으며, 「Piaget의 발생적 인식론과 인지 교육의 근본 문제」, 「학교 학습 성과의 극대화」, 「구성주의적 교육과 평가의 제 문제」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hhuh@cau.ac.kr